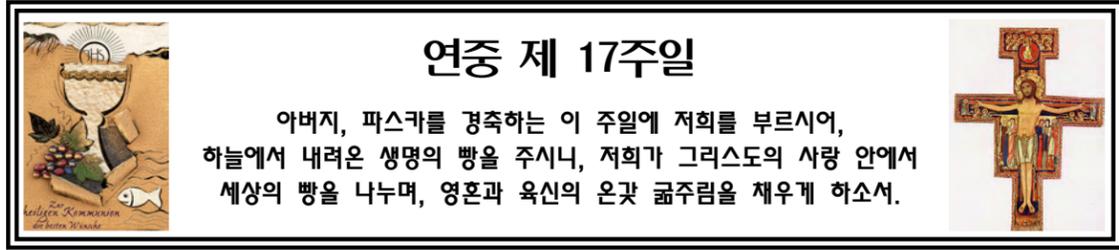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연중 제 17주일

아버지, 파스카를 경축하는 이 주일에 저희를 부르시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주시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상의 빵을 나누며, 영혼과 육신의 온갖 굶주림을 채우게 하소서.

7월 기도지향

- 정연숙 막달레나 가정
정한조, 정지현 막달레나 가정

8월 기도지향 : 이내익 베드로, 김은희 가정
현주용 디모테오, 김진미 안젤라 가정

신심미사

- 예수성심미사 : 8/7(금) 오전 10시
성모성심미사 : 8/8(토) 오전 10시(묵주기도와 함께)
이번 달, 신심미사는 '회관'에서 봉헌합니다.

어르신 친교 모임

- 일시 : 7/26(일) 중심미사 후
장소 : 회관

평화신문 홍보

지난 주일, 평화신문 미주 지사장이신 김영춘 베드로 신부님께서 저희 본당엘 방문하셨습니다. 아직 신문 구독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선교부장)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영

이번 주, 애틀란타 버밍햄 본당 조중희 가브리엘 신부님과 로마 유학 중인 최승환 요셉 신부님이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십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기타

- 지난 주에 공지한 <Fr. Kapaun Celebrating Mass>에 참여하실 분들은 주임신부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올해도 캔사스시티 한인회 주최, 광복절기념 소프트볼 대회(8/15, 토)가 열립니다. 작년의 우승에 힘입어 올해도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수한 베드로 (913) 707-8141

전례 성가

Table with 4 columns: 시작, 예 들, 성 체, 마 침. Values: 34, 340, 175/197, 16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시종 복사, 향 복사. Rows for 금주 and 차주.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Rows for 금주 and 차주.

애찬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금주, 차주. Values: 김경돌, 박정자, 정지연, 함순례;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헌금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금주, 차주. Values: 김태중 예레미아, 문석찬 요셉;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Table with 4 columns: 영성체, 헌금, 교무금. Values: 80명, 392불, 1,26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어,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십니다.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을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서로 일치시켜 주시기를 청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합니다.

그림 묵상

부족한 음식 앞의 감사기도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턱없이 부족한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겸손한 모습이 평범한 우리의 눈에는 놀랍기만 합니다.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손길이 없어질 때, 오늘 복음의 기적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서 : 열왕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4,42-44
< 먹고도 남을 것이다. >



당 신 의 손 을 벌 리 시 - 어 저 희 원 을 채 - 워 주 소 서.

- 일체 당신의 조물들이 주님 당신을 찬미하고 성도들이 당신께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당신 나라 영광을 들어말하며 당신의 능하심을 일컫게 하옵소서.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오면 먹을 것을 제때에 주시나이다. 당신께서 그 손을 벌려주시면 목숨 있는 모든 것 원을 채우나이다.
하시는 일마다 주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이루신 일마다 자애로우시니이다. 당신께 비움은 누구에게나 진정으로 비는 누구에게나 주님께서는 가까이 계시나이다.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4,1-6
<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입니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1-15
<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

# 세 마

## “믿음으로”



천주교, 곧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사입니다. 미사는 가톨릭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고, 미사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눕니다. 미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말씀의 전례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의 전례입니다. 특별히 성찬의 전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만찬을 재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보존해 왔고 그것을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나라에서 거행합니다.

이러한 미사 안에 포함된 성찬의 전례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빵과 포도주의 축성입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또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로 시작되는 말씀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성찬 제정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바로 이 성체성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오, 마르코와 루카 그리고 바오로의 서간인 코린토 1서에서 이것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요한 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하지 않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나올만 합니다. 요한 복음은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내용 대신 다른 복음서에는 찾을 수 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 복음이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내용을 6장에서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은 ‘빵을 많이 하신 표징’과 앞으로 4주간 계속될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마지막 만찬과 성체성사를 세우신 이야기를 대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 복음 6장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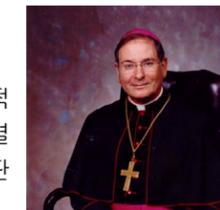
오늘 제1독서에서 우리는 엘리사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보리 빵 스무 개로 군중을 먹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말씀은 오늘 복음과 비슷하며 복음을 준비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아니 장정만 오천 명을 먹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기적을 보고 놀라움에 그분을 따랐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필립보에게 빵을 구하도록 하지만 그의 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백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일 년 급여와 맞먹을 만큼 큰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앓게 한 후 다섯 개의 보리 빵으로 이들을 배부르게 먹게하는 표징을, 기적을 이룹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들은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기적이 신기해 따라왔던 군중들은 빵을 많이 하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빵을 많이 하신 이야기는 기적에 관한 것이기보다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표징은 단지 신기하고 놀라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합니다. 비록 처음의 시작이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었든 사람들은 표징을 통해 믿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에서 신앙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실 그 이유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복음에서 보여주는 군중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에 대한 체험은 우리를 믿음으로, 더 굳은 믿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 주춧돌

## 최근 동성애 결혼 대법원 판결에 관한 주교의 서한



“주님안의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의 결혼에 관한 법적 정의를 새롭게 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의 문화적 추세에 대응하여 판사들은 동성간에 결합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뿐만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시민 및 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수 천년동안 모든 인종 및 종교를 통해 지지되어온 결혼에 관한 이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장기적으로 정치, 경제, 교육 및 종교의 자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판결의 부정적인 결과가 우리의 가톨릭 학교, 대학, 병원, 자선단체 및 교회에 미치게 될 영향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명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교로서, 나는 신앙의 유산으로 사도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전달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실한 가톨릭 신자들인 여러분이 아래의 믿음에 관한 진리를 항상 마음 속에 간직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양심을 판단하는 일을 삼가합니다. 하느님만이 마음을 들여다 보시고 각각의 개인을 올바르게 판단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자연법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둘째, 정확히 말하자면 이성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및 세상에 관한 객관적 진리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객관적 진리는 창조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 근거한 것이고 어떤 시대의 정치적 및 문화적 추세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의심할 여지없이,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에 관한 객관적 진리는 모든 사회의 선익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객관적 진리입니다. 창세기의 바로 첫번째 페이지로부터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음을 배웁니다. (창세 1:27). 하느님의 창조적 계획의 아름다움 속에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상호보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이를 제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초래” 합니다.

법원과 헌법이 결혼의 정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연법 안에 새겨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스런 계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는, 결혼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평생 동안 서로에게 충실하고 서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생명을 중시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라고 교회가 우리에게 전해 온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직하고 보호하는 결혼에 대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넷째, 한 나라의 법은 하느님의 창조계획에 부합되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판명됩니다. 사람의 법은 그릇될 수 있고 변합니다. 1875년 이 나라의 대법원은 노예법을 합법화했습니다. 이것은 악을 용인하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법원이 어떤 것이 옳다고 판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옳바르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궁극적으로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에게 책임을 져야합니다.

교회의 결혼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 우리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인내와 사랑으로 함께 하는 한편,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결혼에 관한 하느님의 신성한 계획을 지지하고 권장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에 대한 우리의 충실함과 우리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무한한 선익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장차 우리의 신앙이 많은 도전을 받을 것이고, 박해도 받을 것이기에, 나는 “희망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 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로마 15:13) 라고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